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15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21일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젊은 도시’ 광주의 위기…2030 청년이 떠난다

평균 연령 43.7세·청년 비율 26.2%…지난해 청년층 5860명 순유출
21년 만에 인구 140만명 무너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 증가

광주시 인구가 21년 만에 140만명 선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청년층 유출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저출생과 청년층 유출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도 고착화 하고 있다.

15일 광주시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2015년 150만 2881명에서 2024년 140만 8422으로 격감하는 등 꾸준히 내리막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광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140만 8422명이었으나, 결국 지난달 139만 9880명까지 주저앉았다. 지난해 연말 감소세를 고려하면 ‘140만명 붕괴’는 예견됐던 셈이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광주시 인구현황을 보면 청년인구(19~39세)인구 감소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2020년 광주시 청년인구는 41만4088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28.6%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36만 9664명으로 26.2%에 그쳤다. 5년새 2.4%p 감소했다. 유소년인구(0~14세)도 2020년 19만 4798명으로 13.4%에서 지난해 16만 5076명으로 11.7%로 줄었다.

청년층(20~30대) 순유출은 2020년 3137명에서 지난해에는 5860명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광주지역 순유출 전체 인구(7962명) 중 청년이 73.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의 유소년 인구 비율과 청년 인구 비율은 각각 11.7%, 26.2%로 전국 평균(10.7%, 25.4%)에 비해 다소 높고 평균연령은 43.7세(전국평균 45.3세)로 비교적 젊은 도시로 분류됐다.

하지만 고령층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광주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만5666명으로 광주시 전체인구의 14.2%를 차지했으나 지난해에는 24만 6980명으로 17.5%에 달했다.

결국 광주시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20년 104만 9598명(72.4%)였으나 지난해 100만명 선이 깨졌다. 지난해 광주시 생산가능 인구는 99만 6366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70.8%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시 외국인 주민수는 꾸준히 증가세다. 2020년 4명 715명이었던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에는 4만9122명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고, 고려인 등 외국국적 동포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출생아는 6043명이고, 사망자는 9131명으로 3088명이 자연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광주 순이동인구(전입에서 전출을 뺀 수치)는 7968명에 달했다.

2020년 6083명, 2021년 5883명, 2022년 7642명, 2023년 9017명으로 지속적으로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광주에서 10세 미만(441명)과 70대 이상 고령층(389명)에서는 순유입을 보였으나, 청년층과 장년층은 순유출이 심화되는 추세로 분석됐다.

2022년까지 0세~19세 인구는 순유입세를 유지했으나, 최근 2년 연속 순유출로 전환돼 인구 유입 기반도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25 K-컬처 페스티벌 광주 동강대학교의 2025 K-컬처 페스티벌이 15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 교내 본관 나이팅게일홀에서 열렸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외국인 학생들이 화합을 다짐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남북 대화채널 신속히 복구”

이재명 대통령, 6·15 공동선언 25주년 “평화가 곧 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또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잃어버린 시간과 사라진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시내버스 파업 1주일…시민 고통 언제까지

노사협상 결렬 파업 장기화 우려

광주 시내버스 노사 임금·단체협약이 또다시 결렬돼 파업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추가로 일부노선에 전세버스를 도입하는 비상수송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모든 불편은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제 1차 사후조정에서 노사의 협상은 결렬됐다.

사측은 당초 임금 동결 입장이었지만, 최저임금안과 올해 물가인상률, 광주시의 준공영제 적자 폭 등을 고려해 2.5%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노조측이 당초 8.2% 인상안에서 최소 5% 인상안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지만 노조측은 8.2%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노위가 3% 인상을 협상안을 제시하자 사측은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노조측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현실적인 임금 인상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업장기화 우려가 제기되자 광주시는 15일 오후 ‘시내버스 파업 관련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노사 양측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 더 이상 ‘힘겨루기’가 아닌 공감과 타협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노조측에 3% 인상안을 수용해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강 시장은 “광주시내 버스기사의 기본급에 이미 통상임금을 반영했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버스요금을 시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만큼 적정한 임금 인상안에 합의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평일 버스 운행율 70% 이상을 유지하지 위해 기존 비상수송대책에 추가로 16일부터 민원이 다수 발생한 노선인, 순환01번(2대), 봉선37번(4대)에 6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투입된 전세버스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운행률이 70~80%대를 유지하더라도 버스기점을 출발하는 기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환01번은 오전 5시 40분 첫 차와 오후 4시 30분 차량이 전세버스로 대체된다. 봉선37번은 송산유원지 출발 기준으로는 오전 6시 20분, 7시, 7시 46분, 8시 40분, 오후 4시 44분, 5시 26분, 6시 22분, 7시 30분 등이 대체되며, 월남동 출발 기준으로는 오전 5시 40분, 9시 10분, 10시, 10시 50분, 오후 3시 57분, 7시 40분, 8시 30분, 9시 38분 등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경광등도 안 켜지는 ‘깡통 순찰차’ 논란 ▶6면
KIA 마운드의 샛별 성영탁 ▶18면
광주, 세계 문학 중심 - 무등산과 문학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2025년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 안내
전라남도 JeollaNamdo

신청대상
● 전라남도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 가동중인 기업
※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으로 축소 적용

구 분	신청조건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 5% 이상 또는 근로자 증가 인원 5명 이상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 인원 3명 이상

※ 일자리 증가율(%) = ('25.6.30. 기준 근로자 수 - '24.7.1. 기준 근로자수) / ('24.7.1. 기준 근로자 수)

지원내용
● (직접지원) 고용환경개선자금 기업당 14백만원,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간접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한도 및 이자 우대 등

선정방법
● 서류 심사, 현지 심사 후 선정

평가방법
● 4개 분야 12개 항목
일자리 창출(40점), 고용안정(40점), 기업경영(20점), 가점(10점)

신청기한
● 2025. 7. 1. (화) 09시 ~ 2025. 7. 9. (수) 18시

선정방법
● 신청 기업이 소재한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모를 확인하세요!